

1. 정답: ①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올린 인물은 설총, 진성여왕에게 시무10조를 건의한 인물은 최치원으로 둘 다 신라의 6두품 계열의 지식인이었다. 이들 신분은 골품제에 의해 관등 진출의 상한이 6등급으로 제한되어 비색과 청색, 황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으나 자색 공복에 해당하는 관등은 진골귀족만 진출할 수 있었으며 통일 전후 특진 제도인 중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았다. ②, ③, ④은 진골귀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 정답: ② 고구려의 발전과정에서 낙랑과 대방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왕은 4세기 전반기 미천왕이며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왕은 장수왕이다. 미천왕과 장수왕 사이에 존재하여 고구려의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주도한 왕은 관등제를 정비하고 태학을 설립한 소수림왕과 정복사업을 전개하며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한 광개토왕이다. 194년 진대법을 도입한 왕은 고국천왕, 천리장성을 축조한 인물은 7세기 연개소문이다.
  
3. 정답: ① 보기의 자료는 조선시대 시행된 정책인 오가작통제와 면리제이다.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군현 아래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를 실시하여 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역역 징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을 통제하였다. ㄷ은 유향소와 향약의 사회적 기능이며, ㄹ은 조선후기 향입직을 둘러싼 향전을 억제하기 위해 향회를 부세를 위한 수령의 자문기구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4. 정답: ④ 보기의 자료는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비판하면서 신채호, 박용만 등이 주도해 만든 북경군사통일회가 요구한 국민대표회의 개최 요구이다. 이 회의는 1923년 독립운동노선에 대한 토론을 위해 개최되었으나 무장투쟁중심의 독립운동노선을 주장하며 임시정부를 간도나 연해주로 옮기자는 창조파와 외교론을 유지하면서 상하이에 두고 임시정부의 개혁을 주장한 개조파의 입장이 대립하다가 결렬되어 이후 임시정부의 비중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5. 정답: ③ (가)의 현량과 설치는 중종 때 조광조가 주도하였으며 (나)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재위 기간에 발생하였고 (라)의 신해통공은 정조 재위기간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선후기 예학의 발달로 제기된 예송논쟁은 효종 사후 효종의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6. 정답: ① 자료의 무천의 제천행사와 책화를 통해 이 국가는 동예임을 알 수 있다. 동예는 군장국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후,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②은 삼한, ③은 옥저의 골장제, ④은 진한의 풍속이었다.
  
7. 정답: ③ 보기의 자료는 독립협회가 1898년 10월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이다. ①은 1896년 4월의 일이며, ②은 아관파천으로 1896년 2월에 발생하였다. ③은 1897년 10월 수립된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1899년의 일이다. ④의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설립된 입법기관으로 갑오1차개혁을 주도하였다.
  
8. 정답: ②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고려 우왕 때인 1377년 최무선이 주도하여 설치된 화통도감이다. 이 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화약무기와 화약을 제작한 고려는 이를 바탕으로 진포해전 등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 복원궁은 고려 중기 문종, 속장경 간행은

속종,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의 일이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제작한 것은 1377년의 일이다.

9. 정답: ③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우정국 낙성식을 이용하여 개화당이 일으킨 정치개혁운동이다. 3일 천하로 끝난 이 사건은 이후 외세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출해하여 영국에 의해 거문도가 무단 점령되는 거문도 사건(1885- 1887)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독일공사 부들러에 의해 중립화 방안이 제시(1886)되기도 하였다. 한편 갑신정변 과정에서 충돌했던 청과 일본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양에 주둔하던 양국 군대의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1885)을 체결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체결되었다.

10. 정답: ② 대한제국의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 시킨 후 독도 등을 관할케 한 조치이며 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 실린 '삼국접양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한 뒤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하여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①, ②, ④은 모두 만주에 관련된 자료이다.

11. 정답: ③ 은 한 근을 우리 지형에 맞춰 제작한 화폐는 고려 속종 때 주전도감에서 제작된 활구이다. 고려 중기인 이 시기에 고려는 3경과 12목에 차, 책 등의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관영상점을 운영하였으며 경시서로 하여금 감독케 하였다. ①의 청해진 설치는 신라 하대, ②의 동시전 설치는 6세기 신라 지증왕, ④이양법의 전국적 보급은 조선 후기의 현상이다.

12. 정답: ④ 자료의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을 건국한 일등 공신으로 <불씨잡변>을 저술한 인물은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불교를 비판하는 한편 재상총재제에 입각한 조선의 통치이념을 제시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규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②, ③은 모두 세종 때의 일이다.

13. 정답: ④ 1903년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주도로 시작된 미국으로의 노동 이민이 처음 이루어진 곳은 하와이다. 이후 많은 한인들이 정착한 하와이는 한일합방 이후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박용만은 이 곳에 한인청년들의 군사교육을 통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1914년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다. ①은 간도, ②은 연해주, ③은 남만주에서 신민회가 조직한 독립운동 기지이다.

14. 정답: ③ 조선후기 <의산문답>을 통해 지구의 자전설인 지전설을 주장한 실학자는 홍대용이다. 홍대용은 상공업 발달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한 북학파였으나 <임하경륜>에서는 양인 장정에게 토지 2결씩을 지급하여 균역을 담당케 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①은 유수원, ②은 유형원, ④은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④ 보기의 관보 내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함께 실시된 군대해산의 조치이다. 이 조치로 대한제국의 시위대와 진위대가 해산되었고 이후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정미의병이 발생하였으며 이 의병은 전국의 의병이 연합하여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여 1908년 서울진공대작전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1909년 일본의 남한대토  
별작전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이 약화되었다. ㄱ은 1905년의 을사의병, ㄴ은 1895년의 을미의  
병에 해당한다.

16. 정답: ㉔ 보기의 ㄱ은 1907년, ㄴ은 1904년 일제가 강요한 1차 한일협약, ㄷ은 1909년의  
기유각서, ㄹ은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이후 일제가 강요한 정미7조약의 내용이다.

17. 정답: ㉑ 민간에 의한 금광이나 은광의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조선 후기의 경제상  
황이다. 조선후기에는 이양법과 견종법의 확산으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농민들  
에 의해 담배, 인삼 등의 상품작물 재배가 이루어져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제현상  
은 일부 지주들로 하여금 병작반수제인 타조법이 아닌 정액제에 입각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도  
조법으로의 전환을 부러오기도 하였다. ㉑의 개간을 목적으로 사패전을 지급한 것은 원간섭기  
대몽항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신속히 개간할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토지이다.

18. 정답: ㉓ 제시문 자료의 내용은 고려 인종 때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묘청의 서경 천도론  
이다. 고려 왕조 때 국가 차원에서 수용된 풍수지리사상은 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남경길지  
설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경, 서경, 남경이 설치되었다. 남경은 조선 건국 직후 남경  
으로의 천도 즉 한양천도론의 사상적 배경이기도 하였다. 초제는 풍수지리사상이 아니라 잔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는 도교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19. 정답: ㉓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하고 계급투쟁론을 비판하면서 세계사적 흐름에  
서 우리민족의 독자성과 민족균등을 강조한 이 입장은 안재홍, 손진태 등이 주도한 신민족주  
의 사관이며 손진태는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등을 저술하였으며 진단학회 회원으로도 활  
동하였다. ㉑은 신채호, ㉒은 박은식, ㉔은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20. ㉑ 의주는 압록강 하구 지역으로 이 지역 주변에는 성종 때 서희의 담판으로 확보한 후  
강동6주를 설치하였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 거란이나 여진족 등과 물품교류의 장소인 각장이  
설치되었으며 금나라가 의주 지역의 요나라 군대를 친 후 철수하기도 하였다. 청천강 유역에  
설치된 도호부는 안북도호부로 압록강 유역인 의주가 아니라 청천강 중류의 영주에 설치되었  
다.